

■
■
■
남영석 다음 카페 「결핵을 이기기위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

2년의 시간이 내게 준 교훈



저는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사랑스런 아내와 이제 두둘 된 아들과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별써 2년이 넘은 얘기네요. 한 달 여의 야근이 끝날 때쯤 찾아온 몸살기운은 열을 동반했습니다. 처음엔 야근도 끝나고 긴장을 놓으니 찾아오는 단순 몸살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몸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기운이 없어 병원 가서 링거도 맞고, 그래도 증세가 나아지질 않아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정상치 보다 많이 높다고 입원치료를 권유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나니 몸에서 좀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생각하고 한 삼일 쯤 생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때부터 찾아온 고열과 오한 그리고 무기력증에 밥도 삼키지 못하겠더군요. 열흘 가량을 병명도 못 찾고 이런저런 검사만 했었고,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퇴원수속을 밟아 큰 대학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제 병명을 찾기는 힘들더군요, 거의 일주일 가량 걸려서 찾아낸 병명이 속립성결핵, 일명 좁쌀 결핵이라 하더군요.

주치의선생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맘속으론 '결핵? 영화에서 그것도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 비련의 여주인공들이 피토하며 죽어가던 그 결핵? 그런 생각만 들더군요.

그날부터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 반 내과에서 호흡기내과로 병실을 옮기고 주치의선생님도 바뀌고, 수십 알의 약 처방을 받는 등 결핵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돌이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구토증상이 심해서 밥 한 숟가락 먹기도 힘들고 숨 쉬기 힘든 것은 물론 밥을 삼키질 못하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몸이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몸무게가 60킬로그램에서 45킬로그램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생활 한 달 반만에 퇴원을 결정하고, 집에서 잠시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 직장에 복귀하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온 고열이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 달간의 병원생활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료과도 감염내과로 바뀌고 주치의선생님도 바뀌

고, 약도 조절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속립성 결핵이 타 결핵과는 달리 병명을 진단하기도 어렵고, 사망률도 높더군요.

보건복지부 집계로는 타 결핵은 사망률이 1~2%정도 인데 비해 피를 통하여 온몸을 돌아다니는 속립성 결핵은 사망률이 16~24%로 결핵 중에서는 최고 악성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치료를 소홀히 하신 분과 발병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치료를 게을리 하신 분들까지도 포함된 통계이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진단과 조기 치료가 있다면 저런 수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핵과 싸우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내 몸이 너무 힘드니 주위 사람들이 힘든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당시 제 와이프는 임신 6개월차에 제 병간호를 시작해서 퇴원할 당시에는 임신 9개월로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의 힘듦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 번씩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제 병간호에 부른 배로 병원 침상 밑 간이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남몰래 눈물도 흘린 적도 있네요.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뱃속에 아가라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없더라도 아내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없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몸 건강해지면 아내에게 정말 잘 해야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정말 잘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비워둔 자릴 지켜준 직장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과 꾸준한 약 복용을 하며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뱃속에 있었던 아들도 건강하게 태어나 100일도 지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차 약제 복용 6개월 차의 병원 정기진료 날이었습니다. 요즘 몸 컨디션도 좋고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어서 이제 약 끊는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생각하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주치의선생님이 병변이 몰려있는 간 조직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형식적인 검사일 것이며, 여전히 제 건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주치의선

생님 말씀은 “균이 아직 활동하고 있고 1차 약에 내성이 있으니 2차약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결핵을 진단 받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투약기간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1차약 먹는 동안 나름 결핵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어서 투약기간이 길어진 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차 약에 내성이 있어 2차 약으로 투약한단 말은 2차 약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가정도 전제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약이기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마음먹었습니다.

2차약은 좀 더 까다롭더군요. 매일 주사도 맞아야하고 약도 하루 세 번, 모든 게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기진료에서 염증수치가 점점 정상치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는 주치의선생님 말씀에 힘을 냈습니다.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암 환자가 진료보기가 낫지 이런 케이스는 의사로서 무지 스트레스다. 암환자는 손 쓸 정도가 넘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약이 있는데도 제대로 듣질 않으니깐 정말 걱정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쭙길 “선생님 제가 그때 약 안 먹었음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께선

아주 단호하게 “약 안 먹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약 먹으면 삽니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잘 따라와 줘서 다행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약 복용으로 발병으로부터 2년이 넘는 지금 치료를 종결하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제 인생에서 짧지 않았던 고통의 2년은, 정말 제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엔 힘들었고 다시 돌이키기 싫지만 긴 터널을 지나온 지금에서는 언

은 게 더 많은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네요.

건강의 소중함,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고마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분들께 결핵은 언젠가는 이길 수 있는 병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마다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 시기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꼭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

